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감사조치 사항

기간: 2022. 10. 13. ~ 20. [8일간]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6건

구분	내용	조치사항
1	집행기관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대한 잦은 수정 및 교체가 있었음. 행정기구 개편이 늦어져 인사발령이 늦어진 결과임. 자료의 수정 및 교체로 의회의 감사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책자 수정 및 변경에 따른 예산도 낭비되는 상황임. 전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람.	조치완료
2	추진현황보고서의 작성된 내용만으로 사업 전반을 이해하기에 내용이 빈약함. 책자 작성 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책자에서 조치 완료라고 보고하였으나 실질적 결과를 살펴보면 결과가 정확히 제시되기보다 험업하고 있음. 추진중, 검토하였음으로 표기 하고 있음 이는 조치 완료가 아니라 '조치중'이라고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조치완료
3	각 부서의 일관된 지도·점검·관리·감독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 체계적으로 통일성 있는 업무 처리를 위해 관련 서식을 공통 서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조치완료
4	우리 시를 대표하는 건축물, 콘텐츠 등 의정부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없음. 시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시 경계 안내 간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한 홍보에 노력해 주기 바람. 또한 문화재단에서 생산하는 자료, 책자 등 모든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지속적, 영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그리고 우리 시에서 활동하던 실력있는 예술인들이 우리 시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의 자체 예술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우수한 예술인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우리 시에서 콘텐츠를 창출하고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추진중
5	예술의전당 카페테리아 운영 적자 문제 관련 1~2년 된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인데 시정이 안되고 있음.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위탁 운영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추진중
6	유지컬 한반도 공연 관련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유지컬을 제작, 상연했는데 실제 관람객은 관내 태권도인 위주였음. 이는 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향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조치완료